

**<아벨의 제사>**  
**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**

10/8(주일) 설교 내용

히브리서 11:4

1.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드렸지만,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.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, 그 두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(밑줄 부분 참조)

① 가인은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. 진정한 예배는 '주일 오전'이라는 시간과 '교회'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.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, '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는 삶'(롬 12:2)을 사는 것입니다.

②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.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그 소산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,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.

이 두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1번에서 이야기했던 두가지는 '좋은 예배'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. 그것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'예배 잘드렸다' 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.

보통 우리는 '예배 잘 드렸다' 라고 말하는데, 그 기준을 '나'에게 둘 때가 많습니다.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, 감동이 되면 그 예배는 '성공한 예배'로 단정해 버립니다.

하지만,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, 성공한 예배의 기준은 언제나 '하나님'이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.

이런 관점에서 위의 1번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함께 다루며 '진정한 예배'에 대해서 진솔한 나눔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3.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?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오늘 말씀의 제목은 '아벨의 제사'입니다.

즉, 가인과 아벨 이라고 하는, 극단적인 두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.

오늘 내용 중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어쩌면, 이 3번 질문이 목장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**예배 승리! 인생 승리!**